

2026학년도 서강대학교
모의논술 자료집 1차
- 인문계열(인문사회) -

서강대학교 입학처

목 차

| | | |
|--------------------------------------|-------|---|
| <input type="checkbox"/> 문제 및 제시문 | | 1 |
| <input type="checkbox"/>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 | 4 |

■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50분입니다.
2. 답안 분량은 800~1,000자입니다.

문제

[가], [나]의 공통 논지를 밝히고, [다]~[마]에서 발견되는 문제의식을 정리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바]~[아]에 나타나는 실천 행동과 윤리의 의의에 대해 논술하시오.

제시문

[가] 2015년 국제연합(UN) 총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17가지를 채택하였다. 순서대로 나열하면, 빈곤의 종식, 기아의 종식, 건강한 삶의 보장, 양질의 교육 및 평생 교육 보장, 양성평등 및 여성 역량 강화, 식수 및 위생 시설에 대한 접근성 확립, 지속 가능한 에너지 보장,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증진, 지속 가능한 산업화 진흥, 국가 내·국가 간 불평등 완화, 지속 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 유형 확립, 기후 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는 긴급 조치 시행, 해양 자원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사용, 육지 생태계 보호·복구·지속 가능한 사용·산림 관리·사막화 대처·생물 다양성 손실 중단, 모두가 접근 가능한 사법 제도, 이행 수단 강화 및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할성화 등이다. 이 같은 목표는 오늘날 인류를 포함한 지구 생태계가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 민주화의 정체, 경기 침체, 불평등 확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극복함으로써 현세대와 더불어 미래 세대의 행복 추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선정되었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

[나] 독일의 철학자 요나스(Jonas, H., 1903~1993)는 저서 『책임의 원칙』에서 인류 존속에 대한 현세대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그에 따르면, 우리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미래 세대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차적으로 그들의 삶의 질을 배려하는 것이다. 그는 “네 행위의 결과가 미래에도 인간이 존속할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행위하라.”라고 말하며, 현세대가 지녀야 할 덕목으로 두려움, 겸손, 검소, 절제 등을 제시하였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

[다] 생태 발자국은 인간이 소비하는 자원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땅의 면적을 의미하고, 생태 수용력은 지구가 인간이 소비하는 자원과 서비스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지구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려면 생태 발자국이 생태 수용력과 같거나 그보다 작아야 한다. 그러나 인류의 생태 자원 및 서비스 수요는 지구 생태계가 공급할 수 있는 생태 수용력을 초과하였다. 2012년 현재 전 세계의 1인당 생태 발자국 수치는 2.8*gha이고 생태 수용력은 1.7gha로, 생태 적자 상황에 부닥쳐 있다. 우리나라는 2012년에 1인당 생태 발자국 수치가 5.7gha이고, 생태 수용력이 0.7gha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1인당 생태 수용력의 8배가 넘는 생태 발자국을 각자 남기고 있는 셈이다>(*gha(global hectares) 생태 발자국과 생태 수용

력 수치를 표현하는 단위로, 해당 연도의 생물학적 생산성의 세계 평균을 구해 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헥타르 단위로 나타낸 것이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

[라] 아파트 단지든 길거리에서든 눈에 띄는 대로 주워 오는 것은 잘린 버드나무뿐이 아니다. 버린 침대 밑바닥의 널조각도 외면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개중에는 향이 진동하는 좋은 나무도 있다. [...] 목재들은 조금만 손을 보면 그럴듯한 ‘다른 물건’이 될 수 있다. [...] 사람들이 어느 날 느닷없이 도시로 몰리고 손끝 하나 까딱 않고 뭐든 쉽게 사들이면서 타고난 손의 기능은 퇴화하기 시작했다. 오래 쓰고, 고쳐 쓰고, 다시 쓰는 일보다는 새것을 사는 게 더 멋진 삶이라고 광고는 실 새 없이 부추겼고, 사람들은 그 거짓말에 쉽게 굴복했다. 유한한 자연 자원과 그것들이 사람한테 오기까지 걸린 시간에 모두 무감각해져 버렸다. 이런 무신경과 난폭한 낭비는 정말 별받을 짓이 아닐 수 없다.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고작 태우거나 묻어 버리는데, 묻어도 능사가 아니지만 태우면 더욱이나 안 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만든다. 이른바 ‘불필요한 생산’이다. 이렇게 과감한 소비 생활은 외양이 아무리 화려해도 문명이라는 이름의 야만과 어리석음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어찌 생각하면, 모두 허무주의자들 같기도 하다. “지구라는 우주선에는 승객이 없다. 모두 승무원일 뿐이다.”라고 말한 이는 매클루언이었다. 이 행성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은커녕, 시방 우리는 오만한 승객인 양 착각의 삶을 살고 있다. 물에 담가 둔 버드나무 토막을 보고 사람들이 “어쩌면 살겠네!”라고 한마디씩 건넨다. 나무는 아마 자신을 두고 한 소리라 알아듣지 않겠나 싶다. 살든 못 살든, 물이 좀 올랐다면 대문 옆에 심을 생각이다.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마] ‘나비 효과’란 베이징에 날아다니는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 토네이도를 일으키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는 기상학적 측면이 아닌 환경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 내가 잠시 냉장고 문을 오래 열고 서 있는 행위가 지구 온난화로 이어져 몰디브와 같이 아름다운 섬을 바다에 잠기게 하고, 휴지나 종이를 낭비하는 행위가 무분별한 벌목을 야기하여 사막화로 이어질 수 있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

[바] 윤리적 소비는 소비자 주체성을 회복하는 운동이라는 관점에서 소비자의 권리인 동시에 소비자의 의무 또는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똑똑한’ 소비자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따져 묻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며 환경적으로는 건전한 세상을 만들고자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 현명한 소비자는 지구 환경, 지역 경제, 가계 경제, 가족의 건강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품을 골라내는 사람이다. [...] 전문가들은 윤리적 소비 관점에서의 경제 정의를 원료와 생산 체계, 기업 정신은 물론 상품의 이면성에 담긴 정치·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판단의 꼭짓점에는 현재의 행위가 다음 세대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속가능성’이라는 말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

[사] 소비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성패를 좌우하기에 소비 활동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

다면 소비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생각하는 소비이다. 생각하는 소비의 첫 번째는 필요 없는 소비의 양을 줄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물건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았는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은 1992년 캐나다에서 한 시민이 시작한 소비 절제 운동으로 현재 전 세계가 함께 참여하는 운동이다. 매년 11월 26일을 ‘아무것도 사지 않는 날’로 정하여 소비 행위를 잠시 멈추고 소비와 환경에 관해 함께 생각해보도록 요청한다. 11월 말이 추수 감사절 선물과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느라 본격적인 소비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부터 한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이 운동을 펼치고 있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

[아] ‘로하스(LOHAS,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란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은 물론, 환경, 사회 정의 및 지속가능한 소비에 높은 가치를 두고 생활하는 사람들의 방식을 말한다. [...] 과거 웰빙(well-being)이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었다면,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로하스(LOHAS)는 건강한 우리의 삶과 더불어 환경 보존을 동시에 추구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로하스는 개인주의적 가치인 ‘건강’과 공동체적 가치인 ‘지속가능성’의 조합으로 표현된다. 웰빙과 로하스의 차이는 웰빙이 이기적인 소비의 개념이라면, 로하스는 물질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타인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스스로 행하는 이타적인 성격을 지닌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 자연 친화적 상품을 선택하는 것은 웰빙이지만, 상품을 선택할 때 상품의 재활용 가능성, 친환경적 요소, 거래의 공정성까지 따지는 것은 로하스이다. 예를 들어, 웰빙이 나의 건강을 위해 좋은 물을 먹으려고 산에서 좋은 물을 받아 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로하스는 몸에 좋은 물을 마시기도 하지만 식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즉 로하스족은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환경과 사회적 정의와 후대에 물려줄 미래 지구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사회 전반적인 책임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로하스적 개념을 적용한다면 우리 가족과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내 이웃과 환경, 지속가능한 사회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까지 생각하는 가장 쉬운 배려가 될 것이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재구성)

□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1. 출제의도

- 이 문항은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에 근거한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10통사02-03], [12생윤05-02] 등에서 학습하는 자연/환경과 인간의 관계, 환경 문제의 심각성과 그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 등을 통합적으로 성찰하면서, 현재의 소비 행동을 반성적으로 점검하고 그 대안 윤리와 소비 행동을 모색하며 변화의 가능성을 탐문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석 능력과 추론적 읽기 및 쓰기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관련된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0통사02-03]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의 다양한 노력을 조사하고, 개인적 차원의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
- [12생윤05-02] 의식주 생활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을 제시하고, 이를 윤리적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으며 윤리적 소비 실천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 [12독서02-05]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
-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
- 종합하면, 이 문항은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통해 학습한 자연/환경과 인간의 관계 및 인간의 책임 윤리와 소비 행동과 관련한 제시문들을 분석하고 통합적으로 추론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으며, 모든 제시문을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발췌함으로써 교육과정을 존중하고 이에 충실하고자 하였다.

2. 문항해설

- 이 문항은 자연/환경과 인간의 관계, 환경 문제의 심각성과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생존과 행복 추구를 위한 다양한 노력 등을 통합적으로 성찰하면서, 현재의 소비 행동을 반성적으로 점검하고 그 대안 윤리 및 소비 행동을 모색하며 변화의 가능성을 탐문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석 능력과 추론적 읽기 및 쓰기 능력 등을 통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 이를 위해 도덕과, 사회과, 국어과 교육과정 등을 융합적으로 활용했다. 또 수험생들이 문제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문제의 요구를 분명히 했다. 문제의 요구는 셋이다.
- 첫째, 인류가 속한 지구 생태계의 위기를 직시하고,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생존과 행복 추구를 위해, 우리가 현재 지녀야 하는 책임감과 그 실천 방향을 논의한 [가], [나]의 공통 논지를 분명히 파악해야 한다.
- 둘째, [다]~[마]에서 발견되는 문제의식을 정리하라는 요구이다. [다]는 지구의 생태 수용력을 초과한 생태 발자국 통계를 보여준다. 생태 적자의 심화 정도가 더욱 가속화되면 지구 파산의 위기에 봉착할 수 있음을 추론하게 한다. [라]는 불필요한 생산과 소비를 지적하면서, 승무원처럼 지구 살림을 위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구라는 우주선은 잠시 탔다가 내릴 수 있는 곳이 아니기에, 잠시의 승객이 아닌 지속적 승무원의 책임감을 강조한 것이다. [마]는 나비 효과를 환

경 문제에 적용하여, 냉장고 문을 여는 것 같은 일상의 작은 행위도 심각한 환경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다]~[마]는 왜 인간이 환경 윤리와 책임감을 긴박하게 지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점검하는 문제의식을 보인다.

- 셋째, [다]~[마]에서 발견되는 문제의식을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바]~[아]에 나타나는 실천 행동과 그 윤리의 의의에 대해 논의하라는 요구이다. [다]~[마]는 무반성적이고 무책임하게 지금처럼 소비하고 행동하면 매우 위험할 수 있음을 반성하게 한다. 이런 반성적 성찰을 바탕으로 할 때 [바]~[아] 같은 소비 행동이 나타난다. 미래 세대와 지속 가능한 지구 생태계를 위한 ‘윤리적 소비’([바]), ‘생각하는 소비’([아]), ‘로하스’([아])는 그 책임 윤리의 실천 양태들이다. [라]에서 비판한 ‘무분별하고 난폭한 소비’가 아니라, [마]에서 환기한 환경 나비 효과까지 고려하고 다음 세대에 미칠 영향까지 숙고하는 사례가 [바]의 윤리적 소비다. [아]도 비슷하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생산과 소통 과정에서 탄소 발자국을 최소화하려는 행위가 생각하는 소비, 절제하는 소비다. [아]의 로하스는 개인 중심의 웰빙과 다르다. 개인의 건강을 돌보면서 사회 정의와 생태 윤리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소비를 지향하는 방식이 로하스다. 개인주의적 가치인 건강과 공동체적 가치인 지속 가능성을 조합한 로하스는 인류의 삶과 더불어 환경 보존을 동시에 추구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 요컨대 [바]~[아]는 생태 수용력을 넘어서는 생태 발자국을 무책임하게 남겨왔던 과거 소비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지구의 미래를 위한 소비의 방향과 윤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충분하다. 환경 문제를 거시적으로만 보아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하는 경향과는 달리, 개인 및 공동체가 지구와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생존과 희망을 위해 할 수 있는 실천 행동이 아직 남아 있고, 우리는 책임 윤리에 입각해 그것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한다는 의의도 거듭 새길 수 있겠다.
- 종합하면, 이 문항은 고등학교에서 학습한 자연/환경과 인간의 관계, 인간의 책임 윤리 및 소비 행동과 관련해 제시된 자료를 분석하고 통합적으로 추론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융합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 문항으로 구안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존중하고 이에 충실히 하고자, 모든 제시문을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발췌하고, 그 제시문과 문제의 요구를 가로지르며 종합적인 사고와 논술을 하게 한 것이 특징이다.

3. 채점기준

[채점기준]

<결과 등급 기준>

- 제시문 [가], [나]의 공통 논지를 파악했는가?
- 제시문 [다], [마], [바]에서 발견되는 문제의식을 각각 드러내고 그것을 통합한 문제의식으로 성찰하고 있는가?
- 제시문 [바], [사], [아]에 나타나는 실천 행동과 그 윤리의 의미를 적절히 추론하여 설명하였는가?

<과정 등급 기준>

- 제시문들이 연역적 전제([가], [나]), 그 전제에 입각해 반성적으로 성찰해야 할 이유([다], [마], [바]), 그 이유에 근거하고 전제를 지향하는 책임 윤리와 실천 행동([바], [사], [아])이라는 논리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식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있는가?
- 제시문 [가], [나]의 공통 논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지구의 미래와 미래 세대라는 핵심어에 유의하고 있는가?
- 제시문 [다]에서 지구의 생태 수용력을 초과한 생태 발자국의 통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 제시문 [라]에서 매클루언이 언급한 바 우주선 승객과 승무원의 비유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
- 제시문 [마]에서 나비 효과의 의미를 환경적 맥락에서 적절히 추론하고 있는가?
- [바], [사], [아]에 나타나는 소비 행동이 미래 세대와 미래 지구를 위한 책임 윤리의 일환임을 드러내고 있는가?

4. 예시답안

인류가 속한 지구 생태계의 위기를 직시하고,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생존과 행복 추구를 위해, 우리가 현재 지녀야 하는 책임감과 그 실천 방향을 [가], [나]는 잘 보여준다. 왜 그런 책임 윤리와 실천이 필요한지 [다]~[마]가 시사하고, [바]~[아]는 그 책임 윤리에 걸맞은 구체적 사례와 동향이다.

[다]는 지구의 생태 수용력을 초과한 생태 발자국 통계를 보여준다. 생태 적자의 심화 정도가 더욱 가속화되면 지구 파산의 위기에 봉착할 수 있음을 추론하게 한다. [라]는 불필요한 생산과 소비를 지적하면서 승무원처럼 지구 살림을 위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구라는 우주선은 잠시 탔다가 내릴 수 있는 곳이 아니기에, 잠시의 승객이 아닌 지속적 승무원의 책임감을 강조한 것 같다. [마]는 나비 효과를 환경 문제에 적용하여, 냉장고 문을 여는 것 같은 일상의 작은 행위도 심각한 환경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이렇게 [다]~[마]는 왜 인간이 환경 윤리와 책임감을 지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점검한다.

무반성적이고 무책임하게 지금처럼 소비하고 행동하면 매우 위험할 수 있음을 반성할 때 [바]~[아] 같은 소비 행동이 나타난다. 미래 세대와 지속 가능한 지구 생태계를 위한 ‘윤리적 소비’([바]), ‘생각하는 소비’([아]), ‘로하스’([아])는 그 책임 윤리의 실천 양태들이다. ‘무분별하고 난폭한 소비’([라])가 아니라, 나비 효과([마])까지 고려하고 다음 세대에 미칠 영향까지 숙고하는 사례가 윤리적 소비다. [아]도 비슷하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생산과 소통 과정에서 탄소 발자국을 최소화하려는 행위가 생각하는 소비, 절제하는 소비다. [아]의 로하스는 개인 중심의 웰빙과 다르다. 개인의 건강을 돌보면서 사회 정의와 생태 윤리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소비를 지향하는 방식이 로하스다.

요컨대 [바]~[아]는 생태 수용력을 넘어서는 생태 발자국을 무책임하게 남겨왔던 과거 소비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지구의 미래를 위한 소비의 방향과 윤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넉넉하다. 환경 문제를 거시적으로만 보아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하는 경향과는 달리, 개인 및 공동체가 지구와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생존과 희망을 위해 할 수 있는 실천 행동이 아직 남아 있고, 우리는 책임 윤리에 입각해 그것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한다는 의의도 되새길 필요가 있다.